

제20차 여성정책포럼

제17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성과와
향후과제

일시·2004년 5월 11일(화) 15:00-17:20

장소·한국여성개발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행사 일정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인 사 말

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15:10 ~ 15:20 주 제 발 표

- 주 제 : 제17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성과와 향후과제
- 사 회 : 변화순
- 발 표 :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15:20 ~ 15:50 [토론1] 공천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여성의 대표성문제

조기숙(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 이화여대 교수)

이연숙(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16대 국회의원)

15:50 ~ 16:20 [토론2] 경선과정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과제

김은경(열린우리당 노원구을 경선 출마자)

김완자(새천년민주당 전북전주시 완산구을 경선당선자)

16:20 ~ 16:50 [토론3] 선거과정 및 개정선거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이미경(열린우리당 은평구갑 당선자)

이혜훈(한나라당 서초구갑 당선자)

16:50 ~ 17:05 [토론4] 여성단체의 선거운동 참여와 역할

조현옥(17대총선여성연대, 여세연 대표)

17:05 ~ 17:20 종 합 토 론

17:20 폐 회

목 차

I. 서 론	1
II. 제17대 총선과 여성의 의회진출 성과	2
1. 여성유권자	2
2. 제17대 총선과 여성의 의회진출 성과	3
III. 제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향후과제	10
1. 선거제도의 개선	10
2.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30%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정 및 비례대표제 교차순번제 도입	11
3.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12
4. 여성예비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노력 강화	13
5. 여성의 당직활동 기회 확대	15
6. 여성정치발전기금의 활용방안 마련	15
참 고 문 헌	16
참 고 자 료 1	17
참 고 자 료 2	19
참 고 자 료 3	32

제17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성과와 향후과제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은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I. 서론

지난 2004년 4월 15일은 제17대 총선이 실시된 날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로 16번의 대통령선거, 17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를 치루었다. 제헌국회 이래 제16대 국회까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역대 여성국회의원 평균비율은 2.5%로 지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직선으로 전환한 제13대 대선 이후 대통령후보들은 여성유권자의 표를 보다 인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하나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여성의 국회참여율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 13대 총선시 여성의원 비율은 2.0%(6명)이었던 것이, 제14대 총선시 2.7%(8명), 제15대 총선시 3.0%(9명), 제16대 총선시 5.9%(16명)로 늘어났다. 이처럼 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명시하였고, 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을 보다 많이 지역구에 후보로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야간은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제16대 국회에서 227개였던 지역구를 246개로 늘리고,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종전에 46석에서 56석으로 늘렸고,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대선시 대통령후보들이 제시한 국회의원 지역구 30%, 전국구 비례대표제 50% 여성후보공천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제17대 총선을 맞아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원년’으로 될 수 있도록 321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결성한 ‘총선여성연대’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계 리더들이 결성한 맑은 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도 ‘여성후보 발굴’ 및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성 102인 국회보내기 운동’을 전개한결과 제16대 여성국회의원 비율 5.9%에서 13%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고는 제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17대 총선과 여성의 의회진출 성과

1. 여성유권자

2004년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제17대 총선의 유권자 수는 약 35,607,296명이다. 이는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 약 33,482,387명보다 2,124,909(6.3%) 늘어난 수자이다. 전국 243개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 수는 146,532명으로 16대 총선(227개 선거구) 당시 147,499명보다 967명(0.7%)이 줄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의 유권자 수가 약 7,751,844만명(2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약 732만명(20.6%), 경남 약 228만명(6.4%), 경북 약 203만명(5.7%) 순이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유권자수는 총 17,011,504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7.8%로 나타났다.¹⁾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으로(220,815명)이며,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시 북제주군을(81,13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별 유권자 수는 여성이 18,109,889명으로 남성 17,497,407명에 비해 612,480명 더 많은 50.9%로 남성의 49.1%에 비해 1.8% 포인트 많다. 유권자의 연령별 통계는 전체 유권자중 20대가 22.1%(7,877,108명), 30대가 24.9%(8,881,580명), 40대가 22.8%(8,131,523명), 50대가 13.2%(4,712,076명), 60대 이상이 16.9%(6,004,545명)이다.²⁾ 성별, 연령별 투표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66명의 지역구 여성후보중 여성위원이 10명 탄생되고, 2등으로 낙선한 여성후보가 10명이 되는 결과를 놓고볼 때, 여성이 여성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남성의 인식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16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여성이 출마한 지역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 여성이 출마할 경우 남성의 85.3%, 여성의 90%가 '능력이 있는 후보라면 지지하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성유권자의 경우도 '90년대에 비해 가족

1) 2004년 4월 현재 시·도별 남녀유권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 7,751,844명(남: 3,803,908명, 여: 3,947,936명) ▲부산 2,796,745명(남: 1,363,057명, 여: 1,433,688명), 대구 1,853,035(남: 897,804명, 여: 955,231명), ▲인천 1,847,676명(남: 917,810명, 여: 929,810명), ▲광주 983,064명(남: 475,841명, 여: 507,223명), ▲대전 1,026,628명(남: 502,663명, 여: 523,965명), ▲울산 751,512명(남: 376,982명, 여: 374,530명), ▲경기 7,317,870명(남: 3,634,906명, 여: 3,682,964명), ▲강원 1,135,027명(남: 561,078명, 여: 573,949명), ▲충북 1,090,247명(남: 536,995명, 여: 553,252명), ▲충남 1,418,472명(남: 700,996명, 여: 717,476명), ▲전북 1,419,430명(남: 693,010명, 여: 726,414명), ▲전남 1,502,347명(남: 734,021명, 여: 768,326명), ▲경북 2,034,821명(남: 992,003명, 여: 1,042,818명), ▲경남 2,283,322명(남: 1,114,501명, 여: 1,168,821명), ▲제주 395,256명(남: 191,826명, 여: 203,430명)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제공

2) 행정자치부 주민과 자료 제공.

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경우 투표시 가족과 상의했다는 비율이 30%로 남자 24.7%에 비해 5.3% 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는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표했다는 비율이 80%에 달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은 투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학력과 사회참여가 신장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더 이상 정치문제가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2004년 6월 5일 실시될 보궐선거³⁾에 ‘여성유권자가 정치인을 결정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17대 총선과 여성의 의회진출 성과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은 지역구 의원 243명, 전국구 의원 56명으로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금번 제17대 총선에서는 39명(13.0%)의 여성의원⁴⁾이 탄생되었다. 이는 역대 총선 중 탄생한 여성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제16대 총선시 여성의원 비율 5.9%(1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정당법 31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을 명시하였고, 정당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을 보다 많이 지역구에 후보로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이다. 이번 제17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후보는 전체 1,175명의 후보 중 66명(5.6%)이며, 당선자는 10명(4.1%)이다. 여성후보를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66명의 지역구 여성후보중 12명(21.2%)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 지역구에서 여성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은 각각 5명의 여성의원⁵⁾이 당선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후보공천을 위하여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8명의 위원중 여성위원은 3명이었다. 심사위원장으로 김광웅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고,

3)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2004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등 재·보궐선거사상 처음으로 4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19곳, 광역의원 38곳, 기초의원 54곳 등 총 11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당내 이우재, 남궁석, 김태홍, 임채정, 김한길, 박병석, 이창복, 김희선(여) 16대 국회의원과 이강철 영업추진단장, 윤원호 중앙위원과 당외 김문환 서울대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김주영 소설가, 박재동 화백, 윤지희(여) 전 참교육실천학부모 회장, 이재철 변호사, 조기숙(여)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이었다. 열린우리당은 243명의 지역구 후보중 11명(4.5%)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⁴⁾

한나라당은 218명의 지역구 후보중 8명(3.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5명이 당선되었다.

금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통령탄핵사건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대체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당 우세지역에 여성을 공천해 주었다는 평을 할 수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의 경우 유명세가 큰 은평 갑의 이미경 당선자와 동대문갑의 김희선 당선자, 고양 일산 갑의 한명숙 당선자, 익산을의 조배숙 당선자에게 공천을 주어 삼선, 재선, 재선, 재선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후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안성의 김선미 당선자를 공천했고, 당선토록 하였다. 금번 총선에서 비록 국회진출에 실패는 하였으나, 김진애후보(용산), 송미화후보(은평을), 노혜경후보(부산 연제), 박선아후보(대구 달서), 허운나후보(성남구 분당갑), 양승숙후보(논산시 계룡시 금산)들은 매우 선전하여 2등으로 낙선하였다.

4) 여성후보가 공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방식1. 단수후보 결정

후보사례: 이미경(서울 은평갑), 김희선(서울 동대문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허운나(경기 성남분당갑) ⇒ 당선자: 이미경, 김희선, 조배숙

◇ 방식2. 전략지역 선정 후 전략후보 결정

후보사례: 한명숙(경기 일산갑), 김진애(서울 용산), 노혜경(부산 연제구), 양승숙(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선아(대구 달서병) ⇒ 당선자: 한명숙

◇ 방식3. 경선

후보사례: 김선미(경기 안성), 송미화(서울 은평을), 김은경(서울 노원), 박영자, 김윤덕(전북 전주완산), 김수진(서울 강남을), 류정숙(충남 당진), 이윤정(광주 동구) ⇒ 경선 통과자: 김선미, 송미화 ⇒ 당선자: 김선미

※ 여성 지역구 공천신청자 중 당내 경선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탈락된 사례:

◇ 공천신청 후 비례대표 신청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사례

- 고은광순(서울 서초갑), 홍미영(인천 부평갑), 윤원호(부산 북강서을)

◇ 전략지역 선정으로 경선에서 제외된 사례

- 이지숙(서울 서초을), 이미경(경기 수원영통)

◇ 경선심사과정에서 탈락된 사례

- 이명례(충남 보령서천)

한나라당도 금번 총선에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225명의 후보 중 5명(2.2%)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던 것보다 다소 많은 218명의 지역구 후보중 8명(3.7%)를 공천하였다. 이중 유명세를 달리하는 대구 달성의 박근혜 당선자, 광명읍의 전재희 당선자, 고양 일산읍의 김영선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한나라당도 새로운 여성후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서초갑 이해훈후보와 부산 연제에 김희정 후보를 공천했고, 당선토록 하였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금번 총선에서 비록 국회진출에 실패는 하였으나, 양경자후보(도봉갑), 김을동후보(성남 수정)후보들이 매우 선전하여 2등으로 낙선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후보는 없으나, 3등으로 낙선된 후보가 5명이나 되었다. 실제, 김미희후보(성남 수정), 유덕화후보(수원 권선), 최미란후보(인천 서구 강화읍), 김은진후보(부산 남구갑), 안상연후보(광주 동구)이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추미애의원을 당 선거대책본부장에 영입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을 임명하고 지역구에 182명의 후보중 8명(4.4%)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탄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깝게도 추미애후보(서울 광진읍)와 김완자후보(전북 전주 완산읍)가 2등으로 낙선하였고, 박금자후보(서울 영등포읍), 신낙균후보(경기 남양주갑)가 3등으로 낙선하였다.

<표 1> 2004년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정당 지역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무소속		전체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2	1	2		4	2	2				0		4		0		1		15	3
부산	1	1	1		1		0				0		1		1		2		7	1
대구	1	1	1		1		2				0		0		0		2		7	1
인천	0		1		0		1				0		1		0		0		3	0
광주	0		0		0		1				0		1		0		0		2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1				0		0		1		0		2	0
경기	3	2	2		3	2	0				1		3		1		3		16	4
강원	0		0		0		0				0		0		1		0		1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1		0				1		0		0		3		5	0
전북	0		1		1	1	0				0		0		0		0		2	1
전남	1		0		0		0				0		0		0		1		2	0
경북	0		0		0		0				0		1		0		1		2	0
경남	0		0		0		0				0		1		0		1		2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전체 (%여성)	8	5	8		11	5	7				2		12		4		14		66	10
정당 전체 (%)	218 (3.7)	100 (5.0)	182 (4.4)	5	243 (3.9)	123	4	3	1	28		123	2	6		224		1175	243 (4.1)	

* 정당전체후보자중 민주국민당(7명), 가자희망(1명), 공화당(5명), 구국초연합(1명), 기독교당(9명), 노년권익보호당(2명)제외됨.

자민련의 경우 7명, 사회당 4명, 녹색사민당 2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무소속의 경우 14명의 여성후보가 나왔으나,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표 1>.

결론적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천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성후보는 66명으로 정당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3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나,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역구 여성후보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여성후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2>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열린 우리 당	김진애(용산구)		민주 노동당	안상연(광주 동구)	
	김희선(동대문 갑)	당선		유덕화(경기 수원 권선)	
	이미경(은평 갑)	당선		김미희(성남 수정)	
	송미화(은평 을)			정경화(고양 덕양 갑)	
	노혜경(부산 연제)			김숙향(경북 포항 북구)	
	박선아(달서 병)			김미영(경남 진주 을)	
	허운나(성남 분당 갑)		자민련	황정수(성동 갑)	
	한명숙(고양 일산 갑)	당선		곽민경(동대문 을)	
	김선미(안성)	당선		이명숙(대구 동구 을)	
	양승숙(논산·계룡·금산)			윤언자(대구 달서 을)	
	조배숙(익산 을)	당선		이경자(인천 연수)	
				유봉희(광주 북구 갑)	
한나 라당	양경자(도봉 갑)			김린경(울산 남구 을)	
	이혜훈(서초 갑)	당선	사회당	용진희(부산 서구)	
	김희정(부산 연제)	당선		이향희(울산 중구)	
	박근혜(대구 달성)	당선		양부현(안양 안안)	
	김을동(성남 수정)			전미선(강원 원주)	
	전재희(광명 을)	당선	녹색 사민당	임이자(안산 상록 갑)	
	김영선(고양 일산 을)	당선		곽금미(충남 천안 갑)	
	김상아(전남 여수 갑)		무소속	한승민(동대문 갑)	
새천 년민 주당	추미애(광진을)			김영수(부산 사하 갑)	
	박금자(영등포 을)			김정희(부산 수영)	
	도정옥(부산 남구 갑)			임은경(대구 서구)	
	최경순(대구 북구 을)			박인숙(대구 북구 갑)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 을)			이미경(경기 수원 영통)	
	원미정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이영성(성남 중원)	
	박정희(광명 을)			민원통(김포)	
	신낙균(남양주 갑)			엄금자(천안 갑)	
민주 노동 당	이선희(종로)			김현숙(논산·계룡·금산)	
	김혜련(중랑 갑)			정봉자(고흥·보성)	
	정현정(서대문 갑)			임진출(경주)	
	홍승하(영등포 갑)			성말순(김해 갑)	
	김은진(부산 남구 갑)			김옥순(충남 보령 서천)	선거전 사퇴
	최미란(인천 서구·강화을)				

둘째, 비례대표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5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각 정당은 전체 190명의 후보 중 91명(47.89%)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는데, 이는 제16대 총선 당시 여성후보 공천비율 25.7%에 비하여 22% 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2004년 4.15총선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정당명	전체후보자수	여성후보자수	전체당선자수	여성당선자수
열린우리당	51	26(51%)	23	12(52%)
한나라당	43	21(48%)	21	11(52%)
민주노동당	16	8(50%)	8	4(50%)
새천년민주당	26	15(57%)	4	2(50%)
자민련	15	5(33%)		0
가자희망2080	6	2(33%)		0
국민통합21	4	2(50%)		0
공화당	2	0(0%)		0
구국총연합	2	1(50%)		0
기독교당	14	7(50%)		0
노년권익보호당	3	0(0%)		0
녹색사민당	6	3(50%)		0
민주화합당	1	0(0%)		0
사회당	1	1(100%)		0
합 계	190명	91명(47.89%)	56명	29명(51.78%)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체 51명의 후보 중 26명(51%)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인 장향숙 한국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홍미영 인천시의원, 박영선, 전 MBC 앵커,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2비서관, 김영주 전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강혜숙 청주대 무용학과 정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윤원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승희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 장복심 대한여약사회 회장이다.

한나라당은 43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21명(48%)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11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인 김애실 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박찬숙 KBS 보도 방송위원,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전여옥 전 KBS 기자,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나원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숙 전국초등학교 여자교장협의회 회장, 고경화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명옥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당원지구당 위원장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체 16명의 후보 중 8명(50%)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4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인 심상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영

순 울산 전 동구청장, 최순영 민주노동당 부대표, 현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이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전체 26명의 후보 중 15명(57%)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고, 이중 2명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이승희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다.

자민련은 15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5명(33%)의 여성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당선권에 든 여성후보는 없었다. 이외에도 가자희망2080은 전체 6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2명(33%)을 공천하였고, 50%의 공천기준을 지킨 기타 정당으로는 국민통합21, 구국총연합, 기독교 및 녹색사민당, 사회당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정당은 각각 2명(50%), 1명(50%), 7명(50%), 3명(50%)을 공천하였다.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기타 정당에는 공화당, 노년권익보호당이 있었다<표 4>.

<표 4> 정당별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열린우리당	장향숙(1)	당선	한나라당	문경숙(42)	
	김명자(3)	당선	민주노동당	심상정(1)	당선
	이경숙(5)	당선		이영순(3)	당선
	홍미영(7)	당선		최순영(5)	당선
	박영선(9)	당선		현애자(7)	당선
	김현미(11)	당선		이주희 (9)	
	김영주(13)	당선		송경아(11)	
	강혜숙(15)	당선		석수경(13)	
	이은영(17)	당선		이정미(15)	
	윤원호(19)	당선	새천년민주당	손봉숙(1)	당선
	유승희(21)	당선		이승희(3)	당선
	장복심(23)	당선		김송자(5)	
	서혜석(25)			김강자(7)	
	신명(26)			이재희(9)	
	나도선(28)			김경천(12)	
	윤선희(30)			송정숙(13)	
	박정호(32)			이금라(15)	
	노복미(34)			안희옥(17)	
	고연호(36)			이윤자(18)	
	김원자(38)			최연자(19)	
	류진숙(40)			안성례(21)	
	전혜숙(42)			장영숙(24)	
	박효경(44)			임정지(25)	
	김희숙(46)			김영애(26)	
	정숙경(48)		자민련	이희자(6)	
	최은규(50)			신은숙(7)	

한나라당	김애실(1)	당선		오영자(13)	
	박찬숙(3)	당선		김용희(14)	
	송영선(5)	당선		권경애(15)	
	전여옥(7)	당선	국민통합21	박원경(2)	
	이계경(9)	당선		이숙자(3)	
	나원경(11)	당선	가자희망2080	이인학(4)	
	김영숙(13)	당선		안혜진(6)	
	고경화(15)	당선	구국총연합	명승희(1)	
	진수희(17)	당선	기독교당	황산성(1)	
	안명옥(19)	당선		윤계숙(6)	
	박순자(21)	당선		서경옥(7)	
	문희 (23)			안행강(9)	
	권혁란(25)			성명선(10)	
	이양자(27)			김효정(12)	
	오경자(29)			유정숙(14)	
	정은숙(31)		녹색사민당	정영숙(3)	
	차원갑(33)			최해경(4)	
	임춘자(35)			여경미(6)	
	이정은(37)		사회당	박진희(1)	
	최경희(39)		합 계	후보 총91명中 29명당선	

결론적으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공천되거나 당선된 여성후보들의 직업으로는 여성운동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인 등으로, 상당수가 정당 안에서 당직자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당선된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의 연령층은 30대 2명, 40대 19명, 50대 13명, 60대 이상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대부분 대학졸업 출신으로 전체 39명 중 대졸이상자가 89.7%(35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으로는 법학, 행정학, 교육학, 정치학, 철학, 여성학, 간호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했다.

17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로 여성의원 수가 30~40%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치지만 2004년 3월 현재 세계 평균(15.4%)에 근접하고 있다. 2004년을 가히 여성 정치의 원년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원들이 세력화되면 고질적인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대부분의 정당들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유권자의 표를 인식해 여성후보 공천 및 여성정책의 개발에 있어 매우 고심한 흔적을 보여 왔다. 이제는 여성유권자들도 이러한 정당의 노력을 보고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총선결과 여성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에 비해 여성후보를 보다 더 지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권자의 50.9%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유권자들은 금번 총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각급 선거에서도 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깨끗한 정치문화의 확산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세력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 과정에서 보

다 많은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21세기의 성숙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당들은 다음 총선을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당내 여성인력 बैं크와 여성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설치되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Ⅲ. 제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향후과제

1. 선거제도의 개선

2004년 3월 9일 정치관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총 299명(지역구 243명, 전국구 비례대표제 56명)으로 제16대 국회에 비해하여 26명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선거제도로는 선거운동에 있어 과열현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소수정당이나 신인의 진출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비례대표의 몫이 적어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갈등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여성의 국회진출도 장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사회 모든 세력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 경우 향후 1안)으로 시·도 단위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한 성(性)이 60%: 40%로 하는 양성평등후보공천제의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동안 우리의 정치문화상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에 익숙해있으므로, 2안)으로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의석비율 지역구 대비 1/2로 하고,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30% 의무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50%:50%로 하는 양성평등후보공천제의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 선거구제의 경우도 1안)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른 대선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한성이 60%: 40%으로 하는 양성평등후보공천제 도입하거나, 또는 2안)으로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3-5인 정도를 선출하며 1-2석은 여성당선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선거구제의 경우 1안)으로 읍·면·동을 한 개 선거구역으로 하여 2명을 선출하는데, 1명은 여성당선보장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5>.

<표 5> 선거구제 현행·개정(안)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 의견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 전국구 비례대표제 -정수: 299인(지역구 243인, 전국구 56인)	(1안) 시·도 단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한성이 60%: 40%로 하는 양성평등후보공천제 도입. (2안) 소선거구제 혼합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 대비 1/2 수준 도입과 지역구 여성후보공천목표제 30% 도입 및 비례대표제 50%: 50% 양성평등후보공천제 도입
지방 의회의원 선거	(광역의회)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구·시·군마다 2인 -비례대표: 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10(최소 3인)	(1안) 시·도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대선거구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한성이 60%: 40%로 하는 양성평등후보공천제 도입. (2안)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3-5인 정도를 선출하며 1-2석은 여성당선보장제 도입.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읍·면·동수(5000미만시 통합) -최소정원: 7인	읍·면·동 단위에서 2명을 선출하되 1명은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당선보장제 적용

2.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후보 30% 여성후보 공천에 대한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정 및 비례대표제 교차순번제 도입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정당법 31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 30/100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경우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이다. 그리고, 지역구 30% 이상을 지킨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의 액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제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들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실제,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회에서 여성후보를 공천한 비율은 지역구의 경우 3.1%, 비례대표제 55.5%로, 지역구의 경우 30%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지킨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무적으로 50%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되어있기에 이를 지킨 정도이다. 따라서 정당법 31조(공직자 여성후보 공천)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첫째 안에서 제시했듯이 선거제도를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30% 여성공천비율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지역구 30% 여성공천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고, 현재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근거하여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약 35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원(70억)으로 올려, 당선된 여성의원 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정치관계법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에 주어진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아울러,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광역의회와 같이 정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이루어진 정치관계법중 국가가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중 10%는 여성의 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제3차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 정부가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포함) 총액은 1,134억원 규모이다.

3. 공천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가. 외부인사가 포함된 민주적으로 확대 개편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운영 및 일정비율 여성위원 포함

제17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각 정당들은 그간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총재가 낙점을 찍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일정비율 외부인사가 포함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시켰다. 앞으로도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일정비율 여성공천 및 사고지구당, 분구 지구당 위원장에 여성 우선 임명

영국 노동당의 경우 1993년 전당대회에서 ‘노령으로 은퇴하는 지역구 위원장과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공천’에 있어 50% 이상 여성으로 공천할 것으로 당헌·당규에 명시하였고, 그 결과 후보선출과정에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한 결과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원 비율도 증가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영국 하원여성의원수는 1992년 9%(60명)에서 1997년 18.2%(120명)로 거의 배가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⁵⁾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의 경우 우선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후보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독일의 정당들도 필요한 비율이 될 때까지 여성은 여성끼리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일정비율의 ‘여성으로 구성된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어 여성후보를 공천해주는 방법을 당헌·당규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구 및 사고 지구당 위원장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 경선공영제의 도입 및 여성후보에 30% 가산점제 운영

2002년 지방선거에 이어 제17대 총선에서도 정치권은 당내 민주화란 명목에 눌러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번 총선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경선제는 보완 할 사항이 많다. 즉, 경선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전화응답자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젊은 층 확보가 어렵고,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에서 전국 동시선거로 개편하고, 경선비용을 전액 정당에서 제공하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에게 30%의 가점을 주는 가산점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여성예비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노력 강화

가. 여성정치인 인재 풀 운영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계는 2003년 8월 321개의 여성단체로 결성된 제17대 총선여성연대를 발족하여 지역구에 여성공천 30%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쟁력을 가진 여성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⁶⁾ 쉽지만은 않았다. 이와

5)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2003), 「(개정증보)오늘의 여성학」(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p.213-214.

관련하여 향후 있을 각종선거를 대비하여 여성계가 해야 할 역할로는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단체장, 여성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된 인재풀에 대하여는 평상시에는 정당이나 여성시민단체의 리더십교육을 통해 정치의 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및 정치의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익히게 하고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 시에는 출마의사를 파악하여 여성후보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당에 리스트를 제공하여 총선에서 일정비율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당 차원의 후보육성 교육강화

2003년 현재 정당차원에서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있는 정도이다. 정당의 기능중 하나가 정치엘리트를 육성해야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성정치인 육성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보다 나은 정치 선진국을 구현하고 여성정치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내 여성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여성당직자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정당이 보다 젊어지고 발전하기 위하여 여성 청년층의 정당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청년 여성들이 당직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당은 교육부와 대학과 연계를 가지고 여대생들이 정당에서 인턴으로 실습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다. 여성정치인 대상 조력자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 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

스웨덴의 경우 여성정치교육에 있어서 조력자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좀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높은 정치인이 국회를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조력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한 정치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을

6)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7) 비르기타 리델(1994), “지방정치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스웨덴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연

개인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 아울러, 금번 당선된 여성중 대다수가 초선이 많다. 여성의원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여성의 당직활동 기회 확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3년 연구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중 당선된 사람 중 과반수가 초선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정치/정당인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고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5월 현재 민주당 중앙당 당직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당무위원 9.2%(9명), 부대변인 9.5%(2명), 상임고문 12.5%(2명), 국회의원 7.6%(9명), 지구당 위원장 1.3%(3명), 실·국장 8.1%(3명)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여성당직 참여도는 2003년 9월 국회의원 4.7%(7명), 상임고문 7.8%(1명), 지도위원 0%(0명), 운영위원 10.5%(6명), 지구당 위원장 1.9%(94명), 부대변인 5.9%(3명), 실·국장 6.3%(1명) 등으로 여성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⁸⁾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된다. 스웨덴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당직활동은 지방의회, 국회진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여성정치발전기금의 활용방안 마련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배정된 여성정치발전기금중 선거가 없는 평년에서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선거시에도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중 일부를 여성후보선거 지원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

구』 통권 제45호,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p.42.

8) 민주당, 한나라당 여성국 자료 제공.

참고문헌

- 김원홍·김은경(1998),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2), 「2002 지방선거 여성후보와 경선제」,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정책포럼, 2002. 4. 1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은경(200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제도 개선방안」, 서울: 여성부.
- 제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2003).

참고자료1

<제17대 총선 여성후보자 득표현황 분석>

▶ 1등 당선자 현황(10人)

성명(소속당)	지역구	득표수	2등과의 격차
김희선(우)	서울 동대문 갑	43,228(44.1%)	3,018
이미경(우)	서울 은평구 갑	50,785(51.8%)	17,002
한명숙(우)	경기 일산 갑	48,286(49.0%)	2,350
김선미(우)	경기 안성	33,363(50.9%)	4,267
조배숙(우)	전북 익산 을	46,078(66.8%)	37,053
이혜훈(한)	서울 서초 갑	54,103(56.4%)	25,785
전재희(한)	경기 광명을	36,029(47.2%)	3,316
김영선(한)	경기 일산 을	52,501(45.1%)	2,264
김희정(한)	부산 연제	57,854(53.7%)	17,697
박근혜(한)	대구 달성	45,298(70.0%)	30,284

▶ 2등 후보자 현황(10人)

성명(소속당)	지역구	득표수	1등과의 격차
김진애(우)	서울 용산	43,915(39.6%)	7,110
송미화(우)	서울 은평 을	50,566(43.1%)	2,541
허운나(우)	경기성남분당 갑	42,362(40.6%)	14,059
노혜경(우)	부산 연제	40,157(37.3%)	17,697
박선아(우)	대구 달서 병	17,399(22.7%)	32,289
양승숙(우)	충남논산계룡금산	37,163(39.5%)	5,079

양경자(한)	서울 도봉 갑	30,538(37.4%)	12,045
김을동(한)	경기성남수정	32,665(30.2%)	14,813
추미애(민)	서울 광진 을	26,973(30.1%)	4,990
김완자(민)	전북전주 완산 을	12,765(16.8%)	39,867

▶ 3등 후보자 현황(9人)

성명(소속당)	지역구	득표수	1등과의 격차
박금자(민)	서울 영등포 을	12,674(13.3%)	28,758
신낙균(민)	경기 남양주 갑	13,104(16.9%)	17,773
김은진(노)	부산 남구 갑	4,178(5.5%)	34,130
최미란(노)	인천 서구강화군을	3,167(5.7%)	23,086
안상연(노)	광주 동구	2,667(4.9%)	25,409
유태화(노)	경기 수원권선	8,114(7.2%)	41,676
김미희(노)	경기 성남수정	12,618(11.7%)	34,860
김정희(무)	부산 수영	1,853(2.1%)	48,950
박인숙(무)	대구 북구 갑	2,179(3.0%)	50,548

* 4등 후보자; 14人, 5등 후보자; 14人, 6등 후보자; 7人, 7등 후보자; 1人.

* 17대 총천시 남녀유권자 수

35,607,296명(남자 17,497,407명; 49.1%, 여자 18,109,889명; 50.9%)

투표율 60.6%; 21,581,5550명.

참고자료2

제17대 총선 여성후보자 득표현황

1. 종로구(이선희)

한나라당 박진	새천년 민주당 정흥진	열린 우리당 김홍신	자민련 백남석	노년권익 보호당 정재복	녹색사민당 양성호	민주노동당 이선희
37,431	9,614	36,843	361	101	129	2,950
42.8%	11.0%	42.1%	.4%	.1%	.1%	3.4%

2. 용산구(김진애)

한나라당 진영	새천년민주당 성장현	열린우리당 김진애	자민련 이용주	민주노동당 정연욱
51,025	9,570	43,915	849	5,467
46.0%	8.6%	39.6%	.8%	4.9%

3. 성동구갑(황정수)

한나라당 김대기	새천년 민주당 나종문	열린 우리당 최재천	자민련 황정수	민주 노동당 최창준	무소속 이세기	무소속 정운국
27,743	11,110	35,617	488	3,275	8,229	657
31.8%	12.8%	40.9%	.6%	3.8%	9.4%	.8%

4. 광진구을(추미애)

한나라당 유준상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열린우리당 김형주	민주노동당 이해삼
26,108	26,973	31,963	4,599
29.1%	30.1%	35.7%	5.1%

5. 동대문구갑(김희선)

한나라당 장광근	새천년 민주당 지용호	열린 우리당 김희선	자민련 김영환	민주 노동당 김영준	무소속 이경희	무소속 한승민
40,210	6,136	43,228	804	4,310	934	2,444
41.0%	6.3%	44.1%	.8%	4.4%	1.0%	2.5%

6. 동대문구갑(한승민)

한나라당 장광근	새천년 민주당 지용호	열린 우리당 김희선	자민련 김영환	민주 노동당 김영준	무소속 이경희	무소속 한승민
40,210	6,136	43,228	804	4,310	934	2,444
41.0%	6.3%	44.1%	.8%	4.4%	1.0%	2.5%

7. 동대문구을(곽민경)

한나라당 홍준표	새천년민주당 유덕열	열린우리당 허인회	자민련 곽민경	민주노동당 정주용
37,058	9,981	35,950	1,281	2,537
42.7%	11.5%	41.4%	1.5%	2.9%

8. 중랑구갑(김혜련)

한나라당 곽영훈	새천년 민주당 김봉섭	열린 우리당 이화영	자민련 정진택	민주 노동당 김혜련	무소속 강경환	무소속 이호준	무소속 임승웅
33,780	6,792	39,110	2,865	4,323	1,193	113	322
38.2%	7.7%	44.2%	3.2%	4.9%	1.3%	.1%	.4%

9. 동봉구갑(양경자)

한나라당 양경자	새천년민주당 이경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민주노동당 홍우철
30,538	4,596	42,583	3,967
37.4%	5.6%	52.1%	4.9%

10. 은평구갑(이미경)

한나라당 강인섭	새천년 민주당 황정연	열린우리당 이미경	국민통합21 김신호	공화당 봉태홍	무소속 김해업
33,783	7,221	50,785	2,429	464	3,379
34.5%	7.4%	51.8%	2.5%	.5%	3.4%

11. 은평구을(송미화)

한나라당 이재오	새천년 민주당 이성일	열린 우리당 송미화	자민련 임왕혁	공화당 김명환	기독교 민승	민주 노동당 정태연	무소속 이용준
53,107	6,064	50,566	1,036	232	627	4,957	774
45.3%	5.2%	43.1%	.9%	.2%	.5%	4.2%	.7%

12. 서대문구갑(정현정)

한나라당 이성현	새천년 민주당 김영호	열린우리당 우상호	자민련 박종원	민주노동당 정현정	무소속 고은석
36,896	3,893	38,795	529	3,721	384
43.8%	4.6%	46.1%	.6%	4.4%	.5%

13. 영등포구갑(홍승하)

한나라당 고진화	새천년민주당 김민석	열린우리당 김명섭	자민련 손석모	민주노동당 홍승하
37,230	21,033	35,584	915	5,963
37.0%	20.9%	35.3%	.9%	5.9%

14. 영등포구을(박금자)

한나라당 권영세	새천년민주당 박금자	열린우리당 김종구	자민련 이중식
41,432	12,674	39,798	1,594
43.4%	13.3%	41.7%	1.7%

15. 서초구갑(이혜훈)

한나라당 이혜훈	열린우리당 함종길	자민련 김우수	무소속 배선영
54,103	28,318	710	12,769
56.4%	29.5%	.7%	13.3%

16. 부산서구(용진희)

한나라당 유기준	새천년 민주당 정오규	열린우리당 최낙정	자민련 박한상	사회당 용진희	무소속 박찬종
30,542	2,696	20,815	332	727	12,731
45.0%	4.0%	30.7%	.5%	1.1%	18.8%

17. 남구갑(도정옥)

한나라당 김정훈	새천년 민주당 도정옥	열린 우리당 김용철	민주 노동당 김은진	무소속 김용주	무소속 이기광	무소속 이영근
38,308	1,100	26,110	4,178	1,978	1,805	1,975
50.8%	1.5%	34.6%	5.5%	2.6%	2.4%	2.6%

18. 남구갑(김은진)

한나라당 김정훈	새천년 민주당 도정옥	열린 우리당 김용철	민주 노동당 김은진	무소속 김용주	무소속 이기광	무소속 이영근
38,308	1,100	26,110	4,178	1,978	1,805	1,975
50.8%	1.5%	34.6%	5.5%	2.6%	2.4%	2.6%

19. 사화구갑(김영수)

한나라당 엄호성	열린우리당 이현만	자민련 최연두	녹색사민당 박홍렬	무소속 김영수	무소속 이정남
40,426	28,821	878	1,258	1,230	1,083
54.9%	39.1%	1.2%	1.7%	1.7%	1.5%

20. 연재구(김희정)

한나라당 김희정	열린우리당 노혜경	무소속 권대망	무소속 송석봉
57,854	40,157	7,774	1,909
53.7%	37.3%	7.2%	1.8%

21. 연재구(노혜경)

한나라당 김희정	열린우리당 노혜경	무소속 권태망	무소속 송석봉
57,854	40,157	7,774	1,909
53.7%	37.3%	7.2%	1.8%

22. 수영구(김정희)

한나라당 박형준	열린우리당 허진호	무소속 김정희
50,803	33,735	1,853
58.8%	39.0%	2.1%

23. 대구 동구(이명숙)

한나라당 박창달	새천년 민주당 정두병	열린우리당 김정호	자민련 이명숙	무소속 김종기	무소속 임대윤
45,245	676	17,473	638	881	17,209
55.1%	.8%	21.3%	.8%	1.1%	21.0%

24. 서구(임은경)

한나라당 강재섭	새천년 민주당 김진수	열린우리당 서중현	민주노동당 김기수	무소속 백승홍	무소속 임은경
62,392	641	31,363	4,686	10,020	2,079
56.1%	.6%	28.2%	4.2%	9.0%	1.9%

25. 북구(박인숙)

한나라당 이명규	열린우리당 조인호	자민련 장갑호	녹색사민당 박중현	무소속 박인숙
52,727	15,739	548	807	2,179
73.2%	21.9%	.8%	1.1%	3.0%

26. 북구을(최경순)

한나라당 안택수	새천년 민주당 최경순	열린우리당 배기찬	민주노동당 서승엽	무소속 권호기	무소속 조시대
67,877	1,442	40,002	5,258	562	468
58.7%	1.2%	34.6%	4.5%	.5%	.4%

27. 달서구을(윤언자)

한나라당 이해봉	새천년민주당 박영린	열린우리당 권형우	자민련 윤언자	무소속 권용범
59,927	931	21,964	1,322	5,487
66.9%	1.0%	24.5%	1.5%	6.1%

28. 달서구병(박선아)

한나라당 김석준	새천년 민주당 서병환	열린우리당 박선아	자민련 김부기	무소속 이외수	무소속 차철순
49,688	880	17,399	615	3,325	4,751
64.8%	1.1%	22.7%	.8%	4.3%	6.2%

29. 달성군(박근혜)

한나라당 박근혜	열린우리당 윤용희	민주노동당 허경도
45,298	15,014	4,367
70.0%	23.2%	6.8%

30. 인천 중구 동구 응진군(원미정)

한나라당 서상섭	새천년 민주당 원미정	열린우리당 한광원	자민련 이수일	민주노동당 문성진	무소속 이세영
25,873	5,327	29,005	822	7,021	13,435
31.8%	6.5%	35.6%	1.0%	8.6%	16.5%

31. 연수구(이경자)

한나라당 황우여	열린우리당 고남석	자민련 이경자	민주노동당 김성진	무소속 최용식
50,156	44,701	1,361	8,194	1,966
47.1%	42.0%	1.3%	7.7%	1.8%

32. 서구 강화군을(최미란)

한나라당 이경재	새천년민주당 김철하	열린우리당 신동근	민주노동당 최미란	무소속 강필희
26,253	2,284	21,563	3,167	2,037
47.5%	4.1%	39.0%	5.7%	3.7%

33. 광주 동구(안상연)

새천년민주당 김대웅	열린우리당 양형일	민주국민당 류계석	민주노동당 안상연
23,000	28,076	501	2,667
42.4%	51.8%	.9%	4.9%

34. 북구갑(유봉희)

새천년민주당 김상현	열린우리당 강기정	자민련 유봉희	민주노동당 김용진
29,023	51,258	628	4,773
33.9%	59.8%	.7%	5.6%

35. 울산 중구(이향희)

한나라당 정갑윤	열린우리당 이정환	자민련 이철수	민주노동당 천병태	사회당 이향희	무소속 문병원
45,359	32,029	822	13,438	3,017	2,298
46.8%	33.0%	.8%	13.9%	3.1%	2.4%

36. 남구을(김린경)

한나라당 김기현	새천년민주당 이규정	열린우리당 도광록	자민련 김린경	민주노동당 김진석
29,347	2,630	22,034	517	9,874
45.6%	4.1%	34.2%	.8%	15.3%

37. 경기 수원권선구(유덕화)

한나라당 신현태	새천년 민주당 이대의	열린우리당 이기우	자민련 고기영	민주노동당 유덕화	무소속 진재범
44,976	6,887	49,790	856	8,114	2,557
39.7%	6.1%	44.0%	.8%	7.2%	2.3%

38. 수원 영통구(이미경)

한나라당 한현규	새천년 민주당 김종열	열린 우리당 김진표	자민련 이현수	녹색 사민당 정경식	민주 노동당 한동근	무소속 이미경
37,952	3,959	49,155	566	643	6,790	2,603
37.3%	3.9%	48.3%	.6%	.6%	6.7%	2.6%

39. 성남시 수정구(김을동)

한나라당 김을동	새천년 민주당 이윤수	열린 우리당 김태년	자민련 서병선	민주 국민당 최상면	녹색 사민당 임미모	민주 노동당 김미희	무소속 양현덕	무소속 이규민
32,665	10,666	47,478	1,463	354	369	12,618	1,429	992
30.2%	9.9%	43.9%	1.4%	.3%	.3%	11.7%	1.3%	.9%

40. 성남시 수정구(김미희)

한나라당 김을동	새천년 민주당 이윤수	열린 우리당 김태년	자민련 서병선	민주 국민당 최상면	녹색 사민당 임미모	민주 노동당 김미희	무소속 양현덕	무소속 이규민
32,665	10,666	47,478	1,463	354	369	12,618	1,429	992
30.2%	9.9%	43.9%	1.4%	.3%	.3%	11.7%	1.3%	.9%

41. 성남시 중원구(이영성)

한나라당 신상진	새천년민주당 김태식	열린우리당 이상락	자민련 김기평	민주노동당 정형주	무소속 이영성
27,032	11,082	42,770	1,456	22,640	4,084
24.8%	10.2%	39.2%	1.3%	20.8%	3.7%

42. 성남시 분당구갑(허운나)

한나라당 고흥길	새천년민주당 김종우	열린우리당 허운나	무소속 강정길	무소속 장명화
56,421	3,445	42,362	1,215	867
54.1%	3.3%	40.6%	1.2%	.8%

43. 안양시 만안구(양부현)

한나라당 정용대	열린우리당 이종걸	자민련 신하철	민주노동당 이재남	사회당 양부현	무소속 고강
43,022	59,346	2,313	7,688	981	993
37.6%	51.9%	2.0%	6.7%	.9%	.9%

44. 광명시을(전재희)

한나라당 전재희	새천년민주당 박정희	열린우리당 양기대	민주노동당 김연환
36,029	3,793	32,713	3,835
47.2%	5.0%	42.8%	5.0%

45. 광명시을(박정희)

한나라당 전재희	새천년민주당 박정희	열린우리당 양기대	민주노동당 김연환
36,029	3,793	32,713	3,835
47.2%	5.0%	42.8%	5.0%

46. 안산시 상록구갑(임이자)

한나라당 김석균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열린우리당 장경수	녹색사민당 임이자	민주노동당 이준모
15,512	18,631	31,646	1,152	4,466
21.7%	26.1%	44.3%	1.6%	6.3%

47. 고양시 덕양구갑(정경화)

한나라당 조희천	새천년민주당 안형호	열린우리당 유시민	민주노동당 정경화
31,324	7,011	40,288	5,416
37.3%	8.3%	47.9%	6.4%

48. 고양시 일산구갑(한명숙)

한나라당 홍사덕	새천년민주당 박태우	열린우리당 한명숙	무소속 최윤기
45,936	3,473	48,286	840
46.6%	3.5%	49.0%	.9%

49. 고양시 일산구을(김영선)

한나라당 김영선	새천년민주당 조길영	열린우리당 김두수	민주노동당 이홍우
52,501	6,735	50,237	7,062
45.1%	5.8%	43.1%	6.1%

50. 남양주시갑(신낙균)

한나라당 안형준	새천년민주당 신낙균	열린우리당 최재성	민주노동당 김창희	무소속 박상대
25,035	13,104	30,877	4,222	4,414
32.2%	16.9%	39.8%	5.4%	

51. 안성시(김선미)

한나라당 이해구	새천년민주당 이병호	열린우리당 김선미	자민련 한범석
26,096	4,658	33,363	1,437
39.8%	7.1%	50.9%	2.2%

52. 김포시(민원통)

한나라당 유정복	새천년 민주당 김원길	열린 우리당 유영록	자민련 김두섭	공화당 김정호	무소속 강동준	무소속 민원통	무소속 이용선
43,344	3,737	39,835	1,026	602	304	638	1,295
47.7%	4.1%	43.9%	1.1%	.7%	.3%	.7%	1.4%

53. 강원 원주시(전미선)

한나라당 이계진	열린 우리당 이재만	자민련 김광림	민주 노동당 김광호	사회당 전미선	무소속 안재윤	무소속 함종한
49,509	45,275	909	7,416	882	712	12,673
42.2%	38.6%	.8%	6.3%	.8%	.6%	10.8%

54. 충남 천안시갑(곽금미)

한나라당 전용학	새천년 민주당 강방식	열린 우리당 양승조	자민련 도병수	녹색 사민당 곽금미	무소속 양승연	무소속 엄금자
25,700	2,323	38,675	15,635	994	511	1,475
30.1%	2.7%	45.3%	18.3%	1.2%	.6%	1.7%

55. 천안시갑(엄금자)

한나라당 전용학	새천년 민주당 강방식	열린 우리당 양승조	자민련 도병수	녹색 사민당 곽금미	무소속 양승연	무소속 엄금자
25,700	2,323	38,675	15,635	994	511	1,475
30.1%	2.7%	45.3%	18.3%	1.2%	.6%	1.7%

56. 논산시 계룡사금산군(양승숙)

한나라당 박우석	열린우리당 양승숙	자민련 이인제	민주노동당 윤창순	무소속 김현숙
10,053	37,163	42,242	2,504	2,220
10.7%	39.5%	44.9%	2.7%	2.4%

57. 논산시 계룡사금산군(김현숙)

한나라당 박우석	열린우리당 양승숙	자민련 이인제	민주노동당 윤창순	무소속 김현숙
10,053	37,163	42,242	2,504	2,220
10.7%	39.5%	44.9%	2.7%	2.4%

58. 전북 전주시 원산구(김완자)

새천년민주당 김완자	열린우리당 이광철	자민련 신광철	민주노동당 이금희	무소속 김광삼
12,765	52,632	618	4,532	5,493
16.8%	69.2%	.8%	6.0%	7.2%

59. 익산시(조배숙)

새천년민주당 이협	열린우리당 조배숙	민주노동당 현주익	무소속 박경철	무소속 이영로
9,023	46,078	6,499	5,430	1,920
13.1%	66.8%	9.4%	7.9%	2.8%

60. 전남 여수시(김상아)

한나라당 김상아	새천년 민주당 김충조	열린우리당 김성곤	녹색사민당 장세석	무소속 김재출	무소속 박광명
1,770	18,740	39,986	556	2,994	364
2.7%	29.1%	62.1%	.9%	4.6%	.6%

61. 고흥군 보성군(정봉자)

새천년민주당 박상천	열린우리당 신중식	무소속 박주선	무소속 신금식	무소속 정봉자
25,246	27,699	23,876	2,253	1,230
31.4%	34.5%	29.7%	2.8%	1.5%

62. 경북 포항시 북구(김숙향)

한나라당 이병석	열린우리당 배용재	민주노동당 김숙향	무소속 허화평
60,580	23,639	7,716	17,628
55.3%	21.6%	7.0%	16.1%

63. 경주시(임진출)

한나라당 정종복	새천년 민주당 박판열	열린 우리당 김도현	민주 노동당 정준호	무소속 김영술	무소속 김일윤	무소속 임진출	무소속 정홍교
64,724	1,012	16,928	7,169	762	28,948	4,244	2,497
51.3%	.8%	13.4%	5.7%	.6%	22.9%	3.4%	2.0%

64. 경남 진주시을(김미영)

한나라당 김재경	열린우리당 김현규	민주노동당 김미영	무소속 강갑중
37,851	17,729	10,433	11,797
48.6%	22.8%	13.4%	15.2%

65. 김해시갑(성말순)

한나라당 김정권	새천년민주당 오순석	열린우리당 김맹곤	무소속 김태화	무소속 성말순
33,087	1,176	35,507	3,644	1,372
44.2%	1.6%	47.5%	4.9%	1.8%

66. 충남 보령시 서천군(김옥순)==선거전 사퇴

한나라당 김태흠	새천년 민주당 박익규	열린우리당 김명수	자민련 류근찬	무소속 신준희	무소속 이금규
5,071	3,505	23,260	30,569	8,663	6,598
6.5%	4.5%	29.9%	39.4%	11.2%	8.5%

참고자료3

<제17대 총선 여성후보자 선거운동 참여관찰 지역구>

참여관찰 기간 : 2004.4.10-14

여성후보	정당	지역구	자원봉사 및 참여관찰자	선거결과
한명숙	열린우리당	경기 고양일산갑	오광민	당선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갑	기우택	당선
송미화	열린우리당	서울 은평을	장우윤	낙선
이혜훈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김은수	당선
김영선	한나라당	경기 고양일산을	박상언	당선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을	배진숙	당선
박금자	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장윤선	낙선
원미정	민주당	인천 중동용진	성지연	낙선
이선희	민주노동당	서울 종로	강영숙	낙선

<17대 총선 여성후보 경선과정 참여관찰 지역구>

여성후보	정당	지역구	자원봉사 및 참여관찰자(기간)	경선결과
송미화	열린우리당	서울 은평 을	문현배 (2004.2.16-28)	당선
김은경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 을	강혜린, 문현배 (2004.3.8-13)	낙선